

"화분으로 다시 태어난"

마한토기

마한은 진한, 변한과 더불어 고조선 이후에 생긴 삼한 중 하나예요. 54개의 부족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로 삼한 중에서 가장 세력이 컸으며,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방에 걸쳐 있었답니다. 당시 정읍에는 마한의 54개국 중 고비리국·초산비리국이 위치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한 변이 4~6m인 네모꼴 구멍을 파고, 내부에 4개의 기둥을 세워 집을 만들었어요. 집 안에는 벽을 따라 도랑(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한쪽 벽면에는 부뚜막도 있었답니다. 정읍 소성면 신천리, 입암면 신면리, 수성동 오정과 용흥리, 북면 이문, 정우면 망담, 신태인 장수동 유적에서 확인된 마한 주거지의 조성시기는 대체로 기원후 3세기였답니다.

마한의 토기는 빠른 회전으로 형체를 만드는 물레의 사용과 높은 온도에서 소성이 가능한 오름가마에서 생산되어 단단하고 실용적이었어요. 표면에는 격자무늬, 삿무늬, 톱니모양 거치문 등을 새겼으며, 조리용기인 계란모양토기, 바리, 시루 등과 무덤의 꺼묻거리인 짧은 목 향아리, 네귀달린토기, 두귀달린토기, 겹아가리 단지 등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정읍시립박물관에 방문하여 마한의 다양한 토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아요.

준비물

체험키트에 들어있어요

토기조각, 목공용풀, 꽃(포인세티아)



집에서 준비해주세요

색연필





1

토기조각을 색연필로 색칠해요
토기조각이 날카로울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토기조각을 맞춰서 목공용 풀로 붙여요
목공용 풀이 마를 때까지 고정해요



3

꽃을 토기화분에 옮겨 심어요



완성

포인세티아를 예쁘게 키워보아요



포인세티아 키우기

햇볕은 좋아하지만 추위는 싫어해요

별이 잘 드는 18℃ ~ 24℃의 실내에서 키워주세요

물은 겉흙이 말랐을때 흠뻑 주세요

물이 앞에 닿지 않도록 흙에 직접 주세요